

農村支援型 小都邑의 類型化에 關한 研究

金 炯 國*

차 례

1. 연구의 배경
2. 지역발전에서의 소도읍개발의 의의
3. 농촌지원형 소도읍 개념정의의 문제와 가능성
4. 소도시의 특성 유형화를 위한 모형정립
5. 한국 소도읍의 유형화를 위한 시도
6. 맺는말

1. 연구의 배경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가 겪어 왔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사회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하고 현저한 것은 도시화 현상이다. 특히 지난 60년대 이후의 도시화는 과열도시화(過熱都市化: hyper-urbanization)⁽¹⁾로 불릴만큼 급속하고 급격한 것이었다. 과열도시화는 경제발전의 흐름과 관련해볼 때 대단히 적극적인 역할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우려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과열도시화가 낳는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경제·사회적 기회를 추구하여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가는 인구이동의 방향이 대도시 지향적이어서 대도시는 과밀(過密)도시 문제에, 한편 농촌발전에 거점(據點)이 되는 소도읍⁽²⁾을 포함한 작은 도시는 과소(過疏) 도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보편적인 것으로 선후진국에서는 대도시 지향의 인구이동 방향을 중소도시로 전향(轉向)시켜 대도시문제와 소도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도시화 정책(國家都市化政策: national urbanization policy)을 입안·실천하고 있다. 바로 1977년 3월에 정부(第一無任所長官室)가 성안한 「수도권 인구재배치 계획」(首都圈 人口再配置 計劃)은 바로 이런 노력의 일단(一端)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계획은 그 역점을 주로 대도시인 수도 서울의 문제해결에 두고, 그 정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專任講師: 이 연구를 지원한 서울大學校 學術財團과 統計處理를 맡아준 韓國科學技術研究所 電子計算研究室의 梁英奎研究員에게 감사드린다.

(1) 年 3.5%의 증가율을 보여 20년만에 도시인구가 倍加되는 정도의 도시화를 가르켜 「과열도시화」라 이름한다. John Friedmann,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3. pp.91-94 참조. 1960-75년에 우리나라 도시인구증가율은 년 평균 9.3%를 기록했다.

(2) 이 연구의 대상인 소도읍은 농촌개발을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기대되는 읍수준의 도시취락을 뜻한다.

책 방향을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점에서 농촌지원(農村支援)에 초점을 둔 소도읍개발은 사실상 외면(外面)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농촌개발을 위해 70년대초 이래 광범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온 새마을운동도 사업단위 지역을 자연부락에 묶으로써 아직도 농촌과 도시의 기능적 유대증진의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 대도시개발에 목시적인 초점을 둔 국가경제개발정책에서도 외면·간과되어온 소도읍은 농촌개발에 방향을 둔 새마을운동에서도 운동의 주된 실천장(實踐場)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정책과 이 분야를 연구하는 안목(眼目)의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남겨져 온 소도읍개발은 앞으로 계속 전개될 국가발전의 효율화를 위해 적절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첫째, 농업발전과 농촌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에 각종 형태의 도시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 바로 그때문에 비로, 농업기재등 각종 도시자본이 농촌에 투입될 수 있는 기지(基地) 혹은 전초지(前哨地)를 필요로 한다. 둘째, 위와 비슷한 논리로 농업 발전은 농업의 상업화에 있다면 농업생산품을 도시시장(都市市場)으로 매개하는 유통(流通) 「센터」를 필요로 한다. 셋째, 대도시인구과밀 방지를 위해 도시지향성 농촌인구를 현지에서 묶어 둘 정책적 필요성과 이론적 타당성이 있다. 이 정책방향에 효율적인 장소의 하나가 소도읍이다. 네째, 농촌소득의 향상과 민주사회의 기대의식확대는 농촌의 사회복지증진을 요청한다. 의로, 교육등의 서비스를 현지에 제공할 수 있는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집적경제를 나타낼 수 있는 소도읍 규모의 도시취락이 필요하다.

이상의 여러 관점에서 소도읍개발이 절실하지만 개발을 위한 이론적 수준이나 정책적 경험 이 전고하지 않다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하나는 농촌도 도시도 아닌 소도읍을 어떻게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 특성을 규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정된 인구집적을 가진 소도읍을 대도시와 같은 복합적 기능을 가진 곳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면 불가피하게 소도읍의 기능특성을 확인하여 그 특성의 잠재력에 따라 특화(特化)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³⁾

이 연구는 바로 우리나라 소도읍의 기능특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국면(局面)을 파악하고 각 국면에 따라 동원 될 수 있는 변수(變數)를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도읍의 기능 특성을 유형화(類型化)하고자 한다. 공간구조의 유형화는 가장 보편적으로 권역화(圈域化 : regionalization)하는 작업인바 이 작업은 공간경제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효과·효율을 얻고자 함이다. 이 연구도 소도읍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소도읍 개발과, 나아가서 지역개발의 효율을 얻기 위한 것이다. 본론에 앞서 오늘날 지역 개발론에서 다루고 있는 소도읍의 위치와 소도읍을 보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3) Richard Cohen, "Small Town Revitalization: Case Studies and a Critique,"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43, No. 1 (January 1977), pp. 3-12.

2. 지역발전에서의 소도읍개발의 의의

근대적이며 발전적인 사회변동인 도시—공업화과정에서 대도시의 강력한 도시경제력에 압도 당하여 소도읍은 상대적 내지 절대적인 위축을 겪어왔다. 소도읍은 정부정책의 결정적 영향력이 없는 한 인구 감소, 사회·경제적 위축, 타도시 경제에 흡수 당하고 있었던 것이 전세계적인 경험이었다.

정부정책이나 기업부문의 호응을 얻어 소도읍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노동집약적이거나 원료지향적인 산업을 소도읍에 유치한 경우라도 대부분의 산업은 사회변화와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양화되고 결과적으로 산업과 더불어 소도읍은 폐허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방직공장을 입지시켰던 소도읍이 바로 이런 경험을 겪고 말았다. 이는 방직공업등 소도읍의 기간산업(basic industry)이 사양화되면 새로운 사회적 요청에 응하여 적응할 수 있는 폭넓은 비기간 산업⁽⁴⁾이 없었기 때문이며 따지고 보면 이런 산업의 복합적 구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 바로 소도읍의 구조적 결함이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지원이 있었으면서도 소도읍의 기능이 쇠퇴되고만 예를 「이스라엘」의 신도시개발정책에서 살펴 볼 수 있다.⁽⁵⁾ 「이스라엘」은 국가안보와 사막개발을 위해 국경지대에 인구 400인 규모의 농촌취락(A계층)을 개발하고, 이 농촌 취락⁽⁶⁾과 대도시간의 도시계층상의 차질을 메꾸기 위해서 농촌취락 위에 인구 2,500—4,000규모의 B계층의 농촌서비스센터, 인구 6,000—12,000규모의 C계층도시 그리고 15,000—60,000규모의 D계층 도시를 형성하였다. 이 정책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의 하나로 농촌소득의 향상과 농촌과 도시를 잇는 교통수단의 확충으로 당초 농촌개발의 거점으로 계획되었던 C급 및 D급도시를 이용하지 않고 그 상위의 수도「텔·아비브」와 공간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그래서 지역중심도시(C급 및 D급)는 상대적인 낙후를 면치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농촌취락 및 이들 지원도시의 크기, 계층, 도시간 간격을 설명하는데 설득력 있던 중심지 이론이 묘사하는 도시체계의 변모를 뜻한다.⁽⁷⁾ 농촌지원도시가 주변 농촌인구의 크기에 따라 발전이 좌우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통수단의 요인에 의한 접근도가 더 중요하게

(4) 지역경제발전론에 따르면 기간산업(혹은輸出産業)이 지역발전의 주된 추진력이지만, 기간산업의 잠재력은 비기간산업(혹은 現地産業)의 활력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John Friedmann and William Alonso,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Cambridge: MIT Press, 1964에서 D.C. North 및 C. Tiebout의 論文參照.

(5) Arie Shacher, "Israel's Development Towns: Evaluation of National Urbanization Policy,"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37, No.6 (November 1971), 362-72.

(6) Ranaan Weitz, *From Peasant to Farmer*,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1, p.52.

(7) R. Abler et al, *Spatial Organization*, Englewood-Cliffs: Prentice Hall, 1971, p.372.

작용하여 인근에 자리한 보다 강력한 도시에 의해 농촌지원도시가 시장세력을 잃고 그래서 침체하고 있음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소도읍은 이런 정책적 소의 이외에도 이론적으로 적절한 관심을 누리지 못했다. 농촌을 포함한 낙후지역의 개발에는 성장거점(成長據點) 이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적 근거로 여겨져 왔다.⁽⁸⁾ 성장거점 이론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여러계층의 도시⁽⁹⁾를 낙후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착안(着案)하여 왔으나 사실상 중요관심의 대상은 대체로 인구 25만 이상의 자체추진적인 도시성장력을 가진 중간규모도시에다 주변 농촌과의 기능적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발전적 힘을 가미하는 것이었지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이하 규모의 도시는 거의 외면되어 온 실정이다.

그 외면의 배경은 특히 발전도상국에서 국가경제 성장의 효율화를 해치지 않아야겠다는 규범적(規範的) 논의와 둘째, 발전효과를 단기간에 이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인구규모인 데가, 세째, 이론적으로 불균형성장 이론의 타당성이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 이론에 대한 커다란 도전은 국가발전에 보다 민주적인 전략을 전개해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지역과 주민에게 평등한 발전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근본적인 이념이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입장이 그만큼 설득력과 정치사회적 타당성을 얻게 된다.

「프리드만」 교수가 대변하는 국가발전의 민주전략은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이념으로 삼는다. 첫째, 일부의 특권 및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성장 보다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증진된 부(富)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경제성장의 추구, 둘째, 중앙집권적인 계획 보다는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광범위한 국민참여로 이루어진 계획의 실시, 세째, 전통 사회에서 온존(溫存)해 있거나 외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억매여 직접, 간접으로 통제받고 있는 경제적 이중구조(二重構造)로부터 탈피하여 현존지식체계에 기초를 두고 그 안에서 전통구조를 전환하는 이른바 자체추진(自體推進)적인 발전의 모색, 네째, 공업—도시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전략으로부터 농업생산부문의 광범위한 개선이 도시공업부문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 전제조건을 기간(基幹)으로 삼는 전략으로의 전환이다.⁽¹⁰⁾

이 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다.

(8) 성장거점이론의 일반적 설명은 筆者의 “地域發展을 위한 成長極과 成長據點,” 行政論叢, 제11권 2호(1973), pp.176-199 참조.

(9) 성장거점을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수준으로 구별하여 成長極(growth poles), 9成長地域(growth areas), 成長點(growth points)으로 각기 이름하기도 한다.

(10) John Friedmann, “A Spatial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 Problems of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Economic Appliquée*, Tome XXVIII, No.2-3, 1975, pp.519-543. 및 John Friedmann and Mike Donglaas,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 A New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in Asia*, School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5.

(1) (투자우선순위)—도시·공업투자에 역점을 둔 종래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도시·농촌 주민간의 이익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진향한다.

(2) (공간계획)—산업부문중심의 국가발전계획에서 부터 투자의 배분, 사업계획의 수립에 공간적 차원을 명백히 통합하는 공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3) (성장거점)—한정된 수의 중요도시에다 경제성장을 추진·지속하는데 역점을 두기보다 중간규모 및 농촌지원도시의 경제력을 확대시켜 농민의 생산성과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4) (농촌발전의 대상인구)—대규모·상업성 영농(商業性營農) 보다는 주로 영세농과 농촌기술자등 농민의 주류(主流)를 이루는 사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5) (시장)—일차산업부문의 수출생산품에 특혜를 베푸는 정책보다는 국내수요를 위한 생산에 실질적이며 중요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6) (기술)—농업생산 및 제조업에 표준형 서구기술(西歐技術)의 도입보다는 나라사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적합한 기술의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7) (보건)—임상(臨床)치료에 전문적 요원과 고가(高價)의 의료시설의 제공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의 환경위생, 예방의학, 전염병 및 풍토병의 퇴치, 가족계획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8) (교육)—도시의 전문분야에 절대적인 관심을 두는 교육보다는 도시·농촌지역의 생산작업에 청소년과 성인이 익숙하도록 역점을 둔다.

(9) (교통)—도시간(都市間) 및 도시내의 교통 시설 건설과 운행(運行) 보다는 농촌으로 부터 중요 국내시장의 접근도 향상 및 하위계층(下位階層)의 도시와 주변 소도읍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농촌교통망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다.

(10) (계획과 실천)—계획이 실천과 유리(遊離)되고 지방주민의 필요가 중앙당국의 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탈피하여 국가계획의 능력이 지방수준의 효과 있는 실천과 결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전개의 방향은 농촌발전을 공간조직(空間組織)으로 체계화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바 이는 농촌발전을 도시·공업발전과 매개할 수 있는 소도읍의 활성화(活性化)를 요청한다. 소도읍의 활성화의 방향은 첫째, 농촌이 필요로 하는 중요 서비스 즉 사회적 서비스(통신, 보건, 교육, 전기, 상수도, 위락), 시장 서비스 (marketing service : 상설시장, 저장시설), 유통서비스(비료, 종자, 살충제, 농기구의 분배를 위한 기구)의 제공, 둘째, 농촌 수제품(手製品)의장센터의 설치 그리고 셋째, 농촌 및 농업의 가공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농촌발전에 도시산업의 활력을 불어 넣자는 것이다.⁽¹¹⁾

(11) Bennett Harrison and Thomas Vietorisz, "Agro-Distribution Systems for Asian Countries," L. Lefebvre and M. datta-Chaudhuri, (eds.), *Regional Development: Experiences and Prospect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The Hague: Mouton, 1971.

도시—공업발전과 농촌—농업발전의 교량역(橋梁役)으로서의 소도읍의 위치가 이론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음을 거울삼아 외국의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경험을 참고해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새로운 정책방향의 실현이 식량 자원의 증산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의 효율화, 도시·농촌간의 발전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복지향상, 새마을 운동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의 관점에서 그 타당성이 발견된다.

3. 농촌지원형 소도읍 개념정의의 문제와 가능성

소도읍은 근대적인 산업기반을 가지지 못한 점에서 통상적인 관념의 도시가 아니며 농촌의 중요경제기반인 농업, 어업, 광업 등 채취산업(採取產業)에다 이를 지원하는 영세적인 상업이나 전 근대적인 공업이 미약하게나마 가미된 점에서 농촌취락도 아니다. 바꾸어 말해 대도시와 같이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규모 도시와 같이 기능이 특화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하에 소도읍의 유형화에 전제가 될 수 있는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자충적(自充的)인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저한계규모(最底限界規模: minimum threshold)의 인구를 가지지 못한 곳이다. 도시경제학의 연구에 의하면 자체추진적인 도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인구규모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인구10만—25만으로 결론짓고 있다.⁽¹²⁾ 이런 점을 미루어 우리나라의 읍 뿐만 아니라 10만전후의 새(市)도 자충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도읍의 발전이 주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변지역의 경제력 신장에 의해 종속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도읍을 성장거점(成長據點)의 작은 단위로 보기보다는 상업적 역할의 중심지(中心地: central place)라 할 수 있다.

셋째, 소도읍의 산업기반은 농업, 어업, 광업, 관광등의 환경산업등 자원지향형(資源指向型) 산업이다. 그가운데 농업, 어업이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산업은 내부구조적으로 근대화되지 않을 때는 저소득일 뿐 아니라 소득원의 안정성이 낮다.

넷째, 소도읍의 자원지향형산업과 결부된 제조업이나 상업도 사회의 수요변화에 적응력이 낮다. 소도읍에 자리잡은 제조업체는 하나의 산업, 하나의 회사, 하나의 공장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쉽게 제품의 사양화(斜陽化), 불실경영(不實經營), 시설노후(施設老朽)의 삼중(三重)적 위험을 안고 있다.⁽¹³⁾

상업및 서비스업도 소도읍의 그것을 이용하던 주변지역에서 교통수단의 발달로 쉽게 상

(12) Harry Richardson, *The Economics of Urban Size*, Lexington: Saxon House/Lexington Books, 1973.

(13) Wilbur Thompson, "The National System of Cities as an Object of Public Policy," *Urban Studies*, Vol. 9, No.1 (February 1971) pp.99-116.

위도시로 접근가능하면 위축·쇠퇴되고 만다.

다섯째, 경제구조의 이중성에 더하여 소도읍에 생활하는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도 근대와 전통의 이중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소도읍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라기보다는 과도적인 생활의 장소로 간주된다. 예컨대 소도읍에 경제·사회적 활력소가 정부정책에 의해 새로이 자리잡게 되면 주변지역에서 이에 대한 매력을 추구하여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기왕에 소도읍에 살던 대도시 지향형 인구는 그곳에 계속해서 정착하기보다는 이동하려는 자극을 더 받게 되고 이들이 이동을 결행(決行)하면 결과적으로 정책적 자극요소가 생산성 높은 기존 소도읍의 인구를 압출시킨 셈이 된다.

위의 논의에서 소도읍의 잠재력 유형화에 준거(準據)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인 소도읍을 산업구조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농업등 일차산업이 특화될 수 있는 소도읍이라도 공간경제의 발달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농업의 상업화 내지 공업화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농업으로 단순하게 유형화함이 타당하지 않다. 공업등 제 2차산업으로 구분하고자 하더라도 도시의 집적경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소도읍을 공업전문화로 파악하고 육성한다는 것도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도읍의 지리적 성격에 따라 소도읍 발전의 부침(浮沈)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입지(立地)적 성격이 소도읍의 실태파악과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유형화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대도시가 지리적으로 팽창하면서 소도시를 병합(併呑)하기도 하며 교통수단의 발달로 대도시 영향권내의 그림자속에서 위성도시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4. 소도읍의 특성유형화를 위한 모형정립

소도읍의 특성 유형화(類型化)는 지역발전론의 권역화(regionalization) 방법에서 흔히 채택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프리드만」은 지역특성에 비추어 「성장지역」(成長地域), 「성장과도(成長過渡) 지역」, 「쇠퇴과도(衰退過渡)지역」, 「자원전선(資源戰線) 지역」, 「문제지역」의 5개 지역으로 유형화하고 있다.⁽¹⁴⁾ 이 구분에서의 특징은 지역의 현황을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시차원(時次元)상에서 상향세(上向勢)에 있는가 아니면 하향세(下向勢)에 있는 지역인가에 따라 분류하는 점이며⁽¹⁵⁾ 그에 더하여 구조적으로 나누기 힘들며 시차원상에서의 변화도 예측불가 하든지 아니면 통상적인 정책상(政策上)의 시차원

(14) John Friedman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ambridge: MIT Press, 1966.

(15) 이와 유사한 접근을 더 예시한다면 현황의 구조적 구분에서는 소득이 전국평균 이상인가 이하인가로 나누고, 시차원상의 변화는 소득의 전국평균 증가율의 이상과 이하로 나누고 있다. L.H. Klaassen, *Area Economic and Social Redevelopment*, Paris: OECD, 1965.

을 넓어서고 있는 한 부문(자원전전)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소도읍의 현상태를 구조적으로 종단분석(縱斷分析)하고 이들 상태가 시차원 상에서 어떻게 변모하는가에 따라 세분(細分)코자 한다. 이렇게 분류된 소도읍은 지금까지의 발전과정과 앞으로 예기되는 발전전망이 소도읍 자체의 역할크기와 특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입지적 특성, 달리 말해 인접한 상위 및 동급 도시와의 보완 내지 경쟁관계의 관점에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소도읍의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류함에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되 이를 종합 지표로서 설명할 수 있는 요인분석(要因分析)방법을 이용한다⁽¹⁶⁾. 이 방법을 통해 소도시의 역할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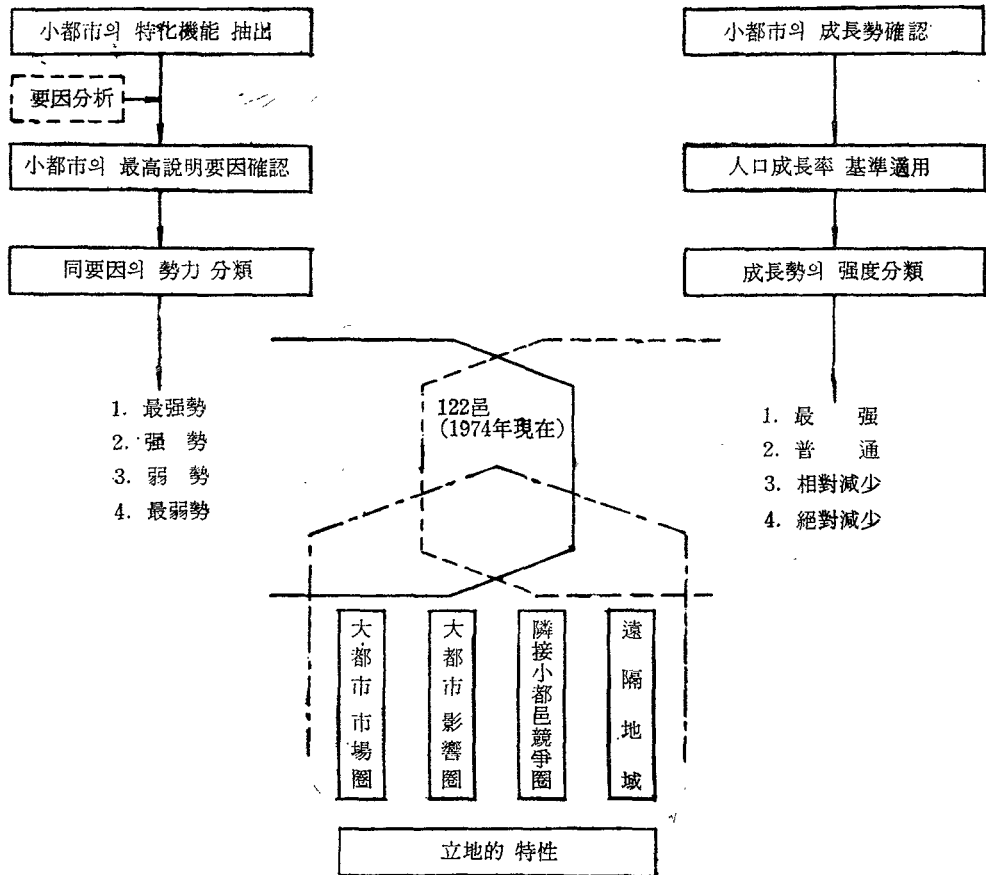


그림 1 小都邑의 特性類型化를 위한 模型

(16) 도시의 역할종류와 크기를 설명하는 많은 변수를 요인분석으로 종합·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는 Brian Berry (ed.), *City Classification Handbook*,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2. 이다. 우리나라의 읍급(邑級)이상의 도시를 요인분석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梁英奎, *Factor Analysis에 依한 韓國의 都市體系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5.

류별로 나눌 수 있고 각 역할종류마다 소도시의 역할크기를 알 수 있다. 또한 시차원상의 변화양상은 인구증가율을 지표로 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입지적 특성은 인접도시와의 상호 관련속에서 (1) 대도시 노동시장권 (2) 대도시영향권, (3) 인접소도읍의 경쟁권, (4) 원격 지역(遠隔地域)으로 분류하고자 한다⁽¹⁷⁾. 원격지역에 속하는 소도읍가운데 휴전선근처 접적지(接敵地), 광산, 도서(島嶼)에 자리잡은 소도읍을 문제성격별로 세분할 수 있다.

위의 세가지 접근을 도표로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

5. 한국소도읍의 유형화를 위한 시도

가. 소도읍의 유형화를 위한 구조분석(構造分析)

(1) 변수(變數)의 선정

이 연구를 위해 선정된 변수는 34개이며 이 변수의 자료는 대부분이 내무부가 거의 년례적으로 작성 발표하고 있는 도시연감(都市年鑑)의 1975년판 1974년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자료확보의 주어진 한계밑에서 선정된 변수는 소도읍의 공간경제(空間經濟)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범주를 염두에 두고 취합된 것인바 34개의 변수는 대체로 아래의 7개 범주로 대별 될 수 있다 (표 1 참조).

제1범주(변수1~2)는 소도읍의 도시기능은 우리나라와 같은 계획경제(計劃經濟)와 행정의 중앙집권체제 아래서는 정부의 계획적, 행정적 관심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고려된 변수들이다.

제2범주(변수 3~4)는 특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도읍이 농촌인구를 도시화시키는 도시계층중 가장 낮은 계층의 도시이며 이런 과정속에서 한편으로 농촌인구를 대·중도시로 유출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제3범주(변수 5~11)는 소도읍의 경제적 활력을 측정하는 변수들이다. 소도읍의 경제적 특성은 도시 산업인 제2차 및 3차산업과 농촌형 산업인 제1차 채취산업이 병존(併存)해 있다. 이들 도시형 및 농촌형 산업이 공존해 있음은 소도읍경제의 크다란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소규모 인구를 가진 도시취락이 농촌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가능적인 요인이기도 하다는데에서 의미있는 변수들이다.

제4, 5, 6 범주는 농촌발전의 거점(據點)으로서 소도읍의 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한 수준에서 기대되는 기능은 당해도읍 뿐 아니라 주변 농촌배후지역에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시장

(17) 이와 거의 유사한 분류로는 崔相哲, “社會開發의 側面에서 본 地域開發”, 韓國未來學會編, 미래를 묻는다. 제 5집 (1977). p.44. 이 연구에 시도된 입지적 유형분류는 (1)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 중심대도시의 영향력이 워낙 지배적이기 때문에 도시의 연장으로 보아도 좋은 지역 (metropolitan dominance)과, (2) 대도시권의 그늘 속에 있는 지역 (urban shadow)과, (3)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지역 (rural-urban balance)과, (4) 도시로부터 遠隔한 지역으로 도시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지역 (rural dominance)이다.

표 1. 變數와 要因負荷

| 변수번호 | 變 數 內 容 | 要因 1 | 要因 2 | 要因 3 | 要因 4 |
|------|-----------------------|-------|-------|-------|-------|
| 1 | 邑昇格年度 | -.117 | -.482 | -.073 | .037 |
| 2 | 都市計劃實施年度 | -.143 | -.094 | -.043 | .006 |
| 3 | 전입인구/전출인구비 | .018 | .168 | -.006 | .780 |
| 4 | 전입인구+전출인구 | .524 | -.067 | -.172 | .668 |
| 5 | 2차산업경제활동인구 | .208 | -.036 | -.299 | .361 |
| 6 | 3차산업경제활동인구 | .689 | .031 | -.088 | .073 |
| 7 | 專業農家戶數 | .019 | -.264 | .844 | -.005 |
| 8 | 兼業農家戶數 | .070 | .020 | .211 | -.146 |
| 9 | 許可建物延面積(1974年) | .165 | .037 | .083 | .326 |
| 10 | 예금총액+대출총액 | .190 | .263 | -.134 | .013 |
| 11 | 금융기관個所 | .273 | .356 | .064 | .170 |
| 12 | 위생관계업소수 | .775 | .265 | -.072 | .192 |
| 13 | 생필품가게수 | .722 | .305 | .062 | .048 |
| 14 | 귀중품가게수 | .744 | .322 | .121 | .011 |
| 15 | 기타서비스가게수 | .728 | .282 | .135 | .163 |
| 16 | 석유·화공품가게수 | .674 | .348 | .265 | .057 |
| 17 | 목공·인쇄가게수 | .632 | .447 | .340 | .060 |
| 18 | 농산물대상가게수 | .363 | .096 | .689 | -.052 |
| 19 | 국민학교교사수 | .819 | .109 | .098 | .058 |
| 20 | 중학교교사수 | .661 | .496 | .133 | .038 |
| 21 | 고등학교교사수 | .447 | .629 | .108 | .215 |
| 22 | 국민학교학생수 | .840 | .102 | .080 | .073 |
| 23 | 중학교학생수 | .658 | .504 | .122 | .073 |
| 24 | 고등학교학생수 | .563 | .634 | .118 | .166 |
| 25 | 인구수 의료병상수 | .039 | -.058 | -.011 | -.004 |
| 26 | 인구수 의사수 | -.112 | -.630 | .107 | -.033 |
| 27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754 | -.081 | -.019 | .010 |
| 28 | 경찰관 1인당 인구수 | -.086 | -.731 | .060 | .033 |
| 29 | 上水道普及率(급수인구/급수대상지역인구) | .275 | .349 | -.037 | .018 |
| 30 | 전화보급율 | .154 | .645 | -.051 | .055 |
| 31 | 수신기보급율 | .802 | .046 | .024 | .181 |
| 32 | 住宅不足率 | .355 | .042 | -.235 | .213 |
| 33 | 道路延長(總計) | .058 | -.072 | .176 | .182 |
| 34 | 國道延長 | .079 | .047 | -.010 | -.061 |
| | 아이겐值 | 11.38 | 2.65 | 1.95 | 1.32 |
| | 個別說明力(%) | 56.2 | 13.1 | 9.6 | 6.5 |
| | 累積說明力(%) | 56.2 | 69.3 | 78.9 | 85.4 |

(市場) 서비스(marketing service), 「유통(流通: distribu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18)

(18) John Friedmann, "A Spatial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 *Economie Appliquee*, Tome XXVIII, No.2-3, 1975.

이런 점에서 제4범주(변수 13~18)는 소도읍이 수행하는 「시장서비스」역할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며 제5 (변수19~24), 6범주(변수 25~28)는 각각 「사회서비스」와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마지막으로 제 7범주(변수 29~34)는 주로 정부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적인 서비스 부문인바 농촌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농촌의 도시화 내지 농촌과 도시의 기능적 연계에 있다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서비스이다.

이상의 34개 변수에는 흔히 크고 작은 도시경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될 뿐 아니라 가장 대표적이라 지적되는 인구규모를 변수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체로 5만이하의 인구규모를 가진 소도읍은 집적경제(集積經濟)라는 도시경제의 이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규모 그 자체가 소도읍의 공간경제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비록 인구규모가 소도읍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그 활력은 바로 아래에서 연구되는 여러 요인분석(要因分析)의 요인(要因)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 소도읍의 요인들은 아주 조악(粗惡)한 도시의 사회경제적인 지표인 인구규모 변수를 더욱 자세히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요인분석(要因分析)의 결과집계

34개 변수를 요인분석(varimax rotation)한 결과 「아이겐」치(eigen值) 1이상의 의미있는 요인은 4개로 나타났으며 4개요인의 설명력은 85.4%이다(표 1참조)

요인부하(要因負荷: factor loading)가 0.5이상으로 각요인과 의미있게 상관되어 있는 변수를 각 요인별로 살펴보아 요인의 특색을 정의하면 첫째, 요인 1은 「전출입인구」(변수 4 : 0.524), 「3차산업경제활동인구」(변수 6 : 0.689), 「위생관계업소수」(변수 12 : 0.775), 「생필품가게수」(변수 13 : 0.772), 「귀중품가게수」(변수 14 : 0.744), 「기타 서비스 가게수」(변수 15 : 0.728), 「석유·화공품가게수」(변수 16 : 0.674), 「목공·인쇄가게수」(변수 17 : 0.632), 「국민학교교사수」(변수 19 : 0.819), 「중학교 교사수」(변수 20 : 0.661), 「국민학교학생수」(변수 22 : 0.840), 「중학교 학생수」(변수 23 : 0.658), 「고등학교 학생수」(변수 24 : 0.563), 「공무원 1인당 인구수」(변수 27 : 0.754), 「수신기보급율」(변수 31 : 0.802)과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요인 1이 주로 시장서비스와 관련있는 변수(변수 6, 12, 13, 14, 15, 16, 17)와 교육서비스와 관련있는 변수(변수 19, 20, 22, 23, 24)를 대표하고 있지만 도시정주(都市定住)로서 아직 취약성(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음—변수 27)이 있으며 한편으로 전출입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요인 1은 전형(典型)적으로 농촌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도읍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관점에서 요인 1은 「농촌지원」(rural service) 요인이라 이름할 수 있겠다.

둘째요인은 「고등학교 교사수」(변수 21 : 0.629), 「중학교학생수」(변수 23 : 0.504), 「고

등학교 학생수」(변수 24 : 0.634), 「의사 1인당 인구수」(변수 26 : -0.630), 「경찰관 1인당 인구수」(변수 28 : -0.731), 「전화보급율」(변수 30 : 0.645)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요인 2는 인구에 대비해서 의사와 경찰관의 수가 많아 「복지서비스」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변수와 그리고 도시형 공공시설서비스(변수 30), 그리고 요인 1에 비하여 교육서비스의 수준(변수 21, 23, 24)도 훨씬 높음을 나타내는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시 기반이 대체로 「농촌지원」요인 이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소도읍에 비하여 충실함을 나타낸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요인 2를 「도회(都會)」⁽¹⁹⁾ 요인이라 이름할 수 있다.

요인 3은 「전업농가호수」(변수 7 : 0.844), 「농산물대상 가계수」(변수 18 : 0.689)와 밀접히 상관되어 있다. 이 요인은 근대적인 도시로 미처 발전하지 못하는 농업형 소도읍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근래 새마을 운동의 결과로 농가소득이 크게 신장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취락이라면 아직은 도시형 산업과 시설의 적극적인 유지필요로 한다. 이런 지극히 전통적인 농촌형 도시취락을 나타내는 요인 3은 「농업지향」요인이라 이름할 수 있겠다.

요인 4는 「전입인구/전출인구비」(변수 3 : 0.780)와 「전입인구+전출인구」(변수 4 : 0.668)와 밀접히 상관되어 있다. 소도읍은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도시화의 인구이동 물결에 디딤돌의 역할을 해왔음은 전세계적인 경험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경쟁력을 가진 소도읍은 도시화의 대열에 참가하는 농촌인구에게 만족할만한 정주처(定住處)가 될 수 없다. 비록 몇몇 소도읍에 근대적인 도시산업이 자리잡고 있더라도 대도시의 그것에 비해 약한 경쟁력 때문에 계속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우며 정부부문이 선도하는 한정된 공공투자(公共投資)도 소도읍에 이미 자리잡고 있던 생산성 높은 인구를 계속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투자의 혜택은 부분적으로 아직 도시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산성 낮은 농촌인구에게 주어질 뿐이다. 이런 과정에서 소도읍의 활력은 상대적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속에서도 농촌인구에게 도시화의 교육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대도시에 이주해서 받기 마련인 도시화의 충격을 줄여주는 도시화 교육의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요인을 「도시전

(19) 도시화의 의미는 첫째, 인구·경제학적인 면에서, 둘째, 사회·문화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도시로 취업기회를 찾아 몰려든 이동인구가 제조업, 제3차산업에 취업할 경우, 대도시의 도시화율에 가담하면서 도시생산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들이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에서 도시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해 사회문화적으로는 도시화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한편 농촌에서 생활할 경우 첫째의 도시화는 경험하기 힘들지만 소득의 향상, 정보의 확대등으로 그곳 주민이 도시와 같은 합리적 사고방식과 쾌적한 도시생활의 생활면의 (전기, 상수도) 대중정보매체의 이용을 갖게 된다면 둘째의 도시화를 체험할 수 있다. 전자의 도시화를 「도시화 I」, 둘째의 도시화를 「도시화 II」라 분류 (John Friedmann,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3, Chapter 5.) 하기도 하며, 후자는 전자를 도시화, 후자를 도회화(都會化)라 이름하기도 한다.

이」(都市轉移) 요인이라 이름할 수 있겠다.

(3) 4개요인에 의한 한국 소도읍의 활력분석

(가) 농촌지원, 도회, 농촌형 소도읍

위에서 의미있다고 지적한 4개 요인가운데 각 요인별 설명력은 56.2%(요인 1), 13.1%(요인 2), 9.6%(요인 3), 6.5%(요인 4)이다. 이가운데 「도시전이」(요인 4) 요인은 사실상 한국의 모든 소도읍이 수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설명의 편의상 제1-3요인과의 역할 속에서 다루기로 한다.

먼저 논의될 「농촌지원」, 「도회」, 「농촌」 요인은 설명력의 크기에 비추어 「농촌지원」요인이 소도읍의 활력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 「농촌지원」요인에 최강세(最強勢)를 보이는 소도읍은 동두천, 평택, 송탄, 신도(경기도), 사북, 묵호, 장성, 황지(강원도), 제천(충북), 안성, 온양(충남), 정주, 김제, 남원(전북), 송정(전남), 영천, 상주, 영주, 점촌(경북), 밀양, 김해(경남), 서귀(제주도)로 전국 122개 읍가운데 21개소로 나타난다.

표 2. 小都邑의 要因別 強度* 및 人口增加率**

| 邑名 | 要因 | 農村支援 | 都 會 | 農 村 | 都市轉移 | 人口增加率 |
|-----|----|------|-----|-----|------|-------|
| 동두천 | | 1 | 4 | 4 | 2 | 0.4 |
| 구 리 | | 2 | 4 | 4 | 1 | 20.1 |
| 여 주 | | 4 | 1 | 3 | 2 | 3.6 |
| 평 택 | | 1 | 1 | 2 | 2 | 5.1 |
| 송 탄 | | 1 | 3 | 2 | 3 | 1.8 |
| 오 산 | | 3 | 3 | 3 | 1 | 7.9 |
| 금 촌 | | 3 | 2 | 3 | 3 | -0.7 |
| 문 산 | | 2 | 3 | 4 | 2 | -1.9 |
| 신 도 | | 1 | 4 | 4 | 1 | -1.8 |
| 가 평 | | 4 | 2 | 4 | 3 | -0.2 |
| 이 천 | | 4 | 1 | 4 | 2 | 4.1 |
| 장호원 | | 4 | 3 | 2 | 3 | 0.2 |
| 안 성 | | 2 | 1 | 3 | 3 | 0.2 |
| 강 화 | | 3 | 1 | 3 | 4 | 0.9 |
| 홍 천 | | 2 | 2 | 4 | 3 | 3.8 |
| 영 일 | | 3 | 2 | 3 | 2 | 0.9 |
| 상 동 | | 4 | 3 | 4 | 3 | -1.0 |
| 경 선 | | 4 | 2 | 4 | 3 | 1.2 |
| 사 북 | | 1 | 4 | 4 | 1 | 4.3 |
| 철 원 | | 4 | 2 | 4 | 3 | 4.0 |
| 김 화 | | 4 | 3 | 4 | 3 | 5.8 |
| 거 진 | | 4 | 3 | 4 | 3 | -1.5 |

| 邑名 | 要因 | 農村支援 | 都會 | 農村 | 都市轉移 | 人口增加率 |
|-----|----|------|----|----|------|-------|
| 주문진 | | 2 | 3 | 4 | 3 | -1.2 |
| 목호 | | 1 | 4 | 4 | 3 | 1.1 |
| 삼척 | | 2 | 2 | 4 | 3 | 1.6 |
| 북평 | | 3 | 3 | 3 | 3 | 0.3 |
| 장성 | | 1 | 2 | 4 | 1 | -0.4 |
| 황지 | | 1 | 3 | 4 | 1 | 0.0 |
| 도계 | | 2 | 4 | 4 | 2 | -0.1 |
| 보은 | | 3 | 2 | 4 | 3 | 1.3 |
| 옥천 | | 4 | 2 | 3 | 2 | 2.2 |
| 영동 | | 3 | 1 | 3 | 3 | 0 |
| 진천 | | 3 | 2 | 2 | 3 | 1.2 |
| 증평 | | 3 | 3 | 2 | 3 | 1.8 |
| 음성 | | 3 | 3 | 3 | 2 | 1.6 |
| 금왕 | | 3 | 4 | 2 | 3 | 0.1 |
| 계천 | | 1 | 4 | 2 | 2 | 4.0 |
| 금산 | | 2 | 2 | 2 | 3 | 3.8 |
| 신천 | | 3 | 4 | 3 | 2 | 1.8 |
| 유성 | | 3 | 3 | 3 | 2 | 2.2 |
| 조치원 | | 2 | 1 | 4 | 3 | 0.9 |
| 공주 | | 2 | 1 | 4 | 1 | 4.0 |
| 논산 | | 2 | 1 | 3 | 2 | 0.9 |
| 강경 | | 4 | 2 | 4 | 3 | 2.8 |
| 연무 | | 4 | 4 | 1 | 4 | -1.5 |
| 부여 | | 3 | 1 | 1 | 2 | 4.9 |
| 강항 | | 3 | 1 | 3 | 3 | 1.4 |
| 대천 | | 2 | 2 | 2 | 3 | 6.2 |
| 홍성 | | 3 | 1 | 2 | 3 | 2.2 |
| 광천 | | 3 | 2 | 2 | 3 | 0.6 |
| 예산 | | 2 | 1 | 3 | 3 | 0.8 |
| 삼교 | | 4 | 4 | 1 | 3 | -0.8 |
| 서산 | | 2 | 2 | 2 | 2 | 3.9 |
| 태안 | | 4 | 3 | 2 | 2 | 0.7 |
| 당진 | | 3 | 1 | 2 | 3 | 0.1 |
| 합덕 | | 3 | 3 | 1 | 3 | -0.5 |
| 온양 | | 1 | 2 | 4 | 3 | 6.4 |
| 성환 | | 2 | 4 | 1 | 3 | 1.5 |
| 삼례 | | 3 | 4 | 2 | 3 | -0.6 |
| 봉동 | | 3 | 4 | 2 | 3 | -0.4 |
| 남원 | | 1 | 2 | 2 | 2 | 3.4 |
| 경주 | | 1 | 2 | 3 | 4 | 3.1 |

| 邑名 | 要因 | 農村支援 | 都 會 | 農 村 | 都市轉移 | 人口增加率 |
|-----|----|------|-----|-----|------|-------|
| 신태인 | | 3 | 3 | 2 | 3 | 0.6 |
| 고창 | | 3 | 1 | 3 | 3 | 0.5 |
| 부안 | | 3 | 1 | 1 | 3 | 1.0 |
| 김제 | | 1 | 1 | 1 | 3 | 1.6 |
| 송정 | | 1 | 3 | 3 | 3 | 2.2 |
| 담양 | | 4 | 1 | 4 | 3 | 2.0 |
| 구례 | | 2 | 4 | 3 | 3 | 1.0 |
| 광양 | | 3 | 3 | 1 | 3 | 0.2 |
| 도양 | | 2 | 4 | 2 | 4 | 2.3 |
| 보성 | | 3 | 2 | 2 | 3 | 0.6 |
| 별교 | | 2 | 4 | 1 | 3 | 2.3 |
| 화순 | | 3 | 4 | 2 | 3 | 0.6 |
| 장흥 | | 2 | 2 | 1 | 2 | 8.1 |
| 강진 | | 3 | 2 | 1 | 2 | 1.1 |
| 해남 | | 3 | 1 | 2 | 3 | 2.0 |
| 나주 | | 3 | 1 | 3 | 2 | 0.7 |
| 영산포 | | 3 | 4 | 2 | 3 | 0.2 |
| 함평 | | 3 | 3 | 2 | 3 | 0.7 |
| 영광 | | 3 | 2 | 2 | 3 | 0.1 |
| 장성 | | 3 | 2 | 2 | 3 | 0.8 |
| 완도 | | 4 | 2 | 4 | 4 | 2.6 |
| 의성 | | 2 | 2 | 2 | 4 | 1.4 |
| 풍산 | | 4 | 4 | 2 | 3 | -0.2 |
| 구룡포 | | 3 | 4 | 3 | 3 | 2.1 |
| 의창 | | 3 | 4 | 1 | 3 | 0.4 |
| 안강 | | 2 | 4 | 1 | 3 | 1.3 |
| 감포 | | 4 | 3 | 4 | 4 | -0.1 |
| 건천 | | 3 | 4 | 1 | 3 | 1.1 |
| 영천 | | 1 | 2 | 1 | 3 | 1.8 |
| 금호 | | 4 | 4 | 1 | 1 | 1.8 |
| 경산 | | 2 | 2 | 3 | 2 | 4.0 |
| 하양 | | 3 | 3 | 2 | 2 | -8.9 |
| 안심 | | 2 | 4 | 3 | 2 | 6.9 |
| 청도 | | 4 | 3 | 1 | 3 | -0.7 |
| 왜관 | | 2 | 2 | 4 | 3 | 0.1 |
| 구미 | | 3 | 1 | 3 | 1 | 34.7 |
| 상주 | | 1 | 1 | 1 | 3 | 1.8 |
| 점촌 | | 1 | 1 | 3 | 3 | 1.5 |
| 문경 | | 3 | 4 | 3 | 3 | 1.5 |
| 가은 | | 3 | 4 | 3 | 3 | -0.1 |
| 예천 | | 4 | 2 | 2 | 1 | 0.1 |

| 邑名 | 農村支援 | 都 會 | 農 村 | 都市轉移 | 人口增加率 |
|-----|------|-----|-----|------|-------|
| 영 주 | 1 | 1 | 2 | 2 | 4.4 |
| 풍 기 | 3 | 4 | 3 | 3 | 2.7 |
| 창 념 | 3 | 2 | 2 | 3 | 0.2 |
| 남 지 | 3 | 3 | 1 | 3 | 0.1 |
| 밀 양 | 1 | 1 | 1 | 2 | 1.9 |
| 삼랑진 | 3 | 4 | 2 | 3 | -0.7 |
| 하 남 | 4 | 4 | 2 | 3 | -0.7 |
| 김 해 | 1 | 1 | 1 | 2 | 4.5 |
| 진 영 | 4 | 1 | 2 | 3 | 2.4 |
| 대 저 | 3 | 4 | 1 | 2 | 2.3 |
| 장승포 | 4 | 1 | 4 | 3 | 1.4 |
| 고 성 | 3 | 2 | 3 | 3 | 2.0 |
| 사 천 | 3 | 2 | 3 | 3 | 1.6 |
| 하 동 | 3 | 1 | 3 | 3 | 0.0 |
| 함 양 | 3 | 2 | 3 | 3 | 1.2 |
| 거 창 | 2 | 1 | 2 | 2 | 2.6 |
| 한 립 | 4 | 3 | 2 | 2 | 1.2 |
| 서 귀 | 1 | 2 | 1 | 1 | 7.0 |
| 대 정 | 4 | 3 | 3 | 3 | 1.6 |

* 부록 1의 要因點數에 의거 1은 最強勢(點數 0.66이상) 2는 強勢 4(0.66~0.0), 3은 弱勢 (0.0~-0.66) 4는 最弱勢(-0.66이하)를 뜻한다.

** 人口增加率は 70-74년의 年평균 증가율이며 70年이후 邑으로 승격된 小都邑은 73-74의 증가율임

「농촌지원」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는 21개 읍 가운데 16개 읍이 시승격(市昇格)의 요건이 되는 5만명이상의 인구규모를 확보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경기도의 동두천, 평택, 송탄, 신도, 강원도의 묵호, 장성, 황지, 충북의 제천, 전북의 남원, 경주, 경북의 영천, 구미, 상주, 영주, 경남의 김해, 제주의 서귀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16개 읍은 멀지않아 시로 승격될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구규모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며 사실상 「농촌지원」요인에 최강세를 나타내는 인구 5만미만의 6개 읍도 뒤이어 시로 승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때 「농촌지원」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는 읍은 이미 도시의 집적경제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을 뜻하며 정부의 정책변수에 의해 농촌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도회」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는 소도읍은 평택, 여주, 이천(경기도), 조치원, 영동(충북), 공주, 장항, 홍성, 논산, 예산, 당진(충남), 김제, 고창(전북), 담양, 해남, 나주(전남), 상주, 구미(경북), 밀양, 김해, 진영, 하동, 거창, 장승포(경남)로 23개 읍이다. 「농촌」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는 소도읍은 주로 비교적 넓은 평야(平野)지대의 농촌에 자리잡는 소도읍으로

20개소에 달한다. 성환, 연무, 삼교, 합덕(충남), 김제, 부안(전북), 장흥, 강진, 벌교, 광양(전남), 상주, 의창, 금호, 청도, 건천(경북), 남지, 대저, 밀양, 김해(경남). 서귀(제주도)로 나타난다.

위의 세 요인 가운데 주목될 만한 사실은 몇몇 소도읍은 하나 이상의 요인에 모두 최강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원」요인과 「도회」요인에 강세(強勢)를 보이는 소도읍은 평택, 안성이다. 「농촌지원」요인에 최강세가 아닌 강세이면서 역시 「도회」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는 소도읍까지 추가하면 조치원, 공주, 논산, 예산이 포함된다. 「농촌지원」요인과 「농촌」요인이 서로 복합된 소도읍으로는 성환, 부안, 벌교, 서귀가 있으며 세 요인에 모두 강세를 보이는 소도읍으로는 김제, 상주, 밀양, 김해가 있다.

종합적으로 이 통계적 접근에서 얻어낸 결과를 통해 너무 사태를 단순히 볼 위험이 있지만 소도읍의 사회·경제적 특색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경기도의 동두천은 「농촌지원」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는데 반해 나머지 두 요인에 있어서는 최열세를 보이는 것을 미루어 보면 농촌지원형의 소도읍으로 그 성격이 부각되는 한편, 평택의 경우는 「농촌지원」과 「도회」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면서 「농촌」요인에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소도읍이며 현재의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면 지역 사회속에서 그 사회 경제적 역할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의 설명논리로서 여주, 이천은 「도회」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는데 반해 「농촌지원」과 「농촌」요인에 열세를 보이고 있음은 이들 소도읍이 도시 자체와 주변지역에 사회경제적 면에서 보다는 사회문화적인 면에 그 기능적 특징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도시전이」요인은 앞서 설명한 요인 1(농촌지원), 요인 2(도회), 요인 3(농촌)의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소도읍의 구조 혹은 실태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도시화의 흐름, 혹은 도시로 가는 과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도시전이」요인에 최강세를 나타내는 읍은 11개 읍이며 강세를 나타내는 읍은 27개읍에 달한다. 「도시전이」요인에 강세(최강세 포함)를 보이는 37개읍을 읍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세개의 요인(농촌지원, 도회, 농촌)과 결부시켜 가설(假說)적이거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농촌지원」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면서 「도시전이」요인에 강세(최강세 포함)를 보이는 읍(동두천, 신도, 평택, 장성, 황지, 제천, 남원, 밀양, 김해, 서귀)은 충분치 않지만 주변농촌인구에게 취업기회등의 확대되는 경제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중도시로 향하는 도시화 인구에게 도시문화를 노출시키는 도시화 교육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도시전이」요인에 강세를 보이면서 「도회」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는 읍(여주, 이천, 공주, 논산, 부여, 나주, 구미, 하양)은 도시화과정에 있는 인구에게 도시에 적합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도시생활 편익(의료, 교육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화를 교육하는 장소로서 그 기능을 다한다. 이과정 속에서 도시화 흐름의 발생이 읍의 기존시설과 그 이용에 큰 부담을 가하지 않는다.

세째, 「도시전이」요인에 강세이면서 「농촌」요인에 강세를 보이는 읍(금호)은 농업부문의 성장에 따라 도시화 과정을 촉발하고 있지만 도시문화, 도시편익시설등의 불비(不備)로 도시화 인구를 그곳에 정착시킬 형편이 못된다.

나. 소도읍의 성장추세(成長趨勢)

소도읍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종단(縱斷)적으로 구조 분석하는 것 못지 않게 시차원(時次元)상에서 변천하는 모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도읍을 포함한 도시정주(都市定住)의 성장추세를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간편하나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지표(指標)는 인구성장율이다.

소도읍의 기능은 근대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중도시의 위력있는 집적경제(集積經濟)에 압도당하여 미약한 기능을 가진 읍이나마 그 지역경제력이 해마다 상대적 낙후(落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도시의 비약이 특히 현저한 반면 소도읍의 인구는 전체도시 체계의 인구구성에서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상 소도읍의 인구팽창세는 대·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 낙후를 나타내지만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읍인구는 전국인구의 자연증가율에 미달하는 한편 적지 않은 읍이 부(負)의 인구 증가, 내지 절대적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도읍의 인구성장추세는 크게 4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시화율을 상회하는 소도읍이다. 이는 비록 인구규모는 소도읍이지만 공업단지 건설등 정부의 정책변수가 작용하든지 자체의 경제력이 높아서 급속한 우리나라 도시화율만큼 인구흡입 능력을 가진 곳이다. 둘째 부류는 도시화율에는 미치지 못하되 전국인구의 자연증가율을 상회하는 곳이다. 이 소도읍은 바꾸어 말해 자연증가율에 추가하여 사회증가 요인에 의해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소도읍이다. 세째, 자연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되 0%이상의 인구증가를 나타내어 이른바 인구의 절대감소는 없으나 적지않은 인구유출을 나타내는 곳이다. 마지막은 인구의 절대감소를 나타내는 곳이다.

소도읍의 인구증가추세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다시 인구증가추세와 구조적인 소도읍의 도시기능 즉 「농촌지원」요인에 의한 기능의 크기와 대비해 보면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소도읍은 인구증가율은 자연증가율 이하이면서 「농촌지원」요인에서도 열세를 나타내는 소도읍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지만 모두 읍에 달하는 자연증가율 이하이나 절대감소를 보이지 않는 인구증가추세이면서 「농촌지원」요인에 역시 약세를 보이는 소도읍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소도읍의 문제를 대표

하는 곳이다.

지역개발이론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원칙은 소도읍에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 한다. 그러나 사회개발의 관점에서 지원·개발해야 할 경우에 어느정도의 성과를 얻을

표 3. 소도읍 특성의 구조 및 시계열 분석

| 농촌지원요인 인구증가율(%) | 最 强 勢 | 强 勢 | 弱 勢 | 最 弱 勢 |
|--------------------|---|---|---|--|
| I >6.2 | 신도, 은양, 서귀. | 구리, 대천, 장흥, 안심. | 오산, 구미. | |
| II 1.6—6.2 | 평택, 송탄, 사북, 제천, 남원, 정주, 김제, 송정, 영천, 상주, 영주, 밀양, 김해, 서귀. | 홍천, 삼척, 금산, 공주, 서산, 도양, 별교, 경산, 거창. | 증평, 음성, 신탄진, 유성, 부여, 홍성, 해남, 구룡포, 풍기, 대저, 고성, 사천 | 여주, 이천, 김화, 철원, 옥천, 강경, 담양, 완도, 금호, 여주, 이천. |
| III 1.6—0 | 동두천, 목호, 황지, 절촌. | 안성, 조치원, 논산, 예산, 성환, 의성, 안강, 왜관. | 강화, 영월, 북평, 보은, 영동, 진천, 금왕, 장항, 광천, 당진, 신탄진, 고창, 부안, 구례, 광양, 보성, 화순, 강진, 나주, 함평, 영광, 장성, 의창, 진천, 문경, 창녕, 남지, 하동, 함양. | 가평, 장호원, 경신, 태안, 예천, 장승포, 함평, 대정. |
| IV <0 | 장성. | 문산, 주문진, 도계 | 금촌, 합덕, 삼례, 봉동, 영산포, 하양, 가은, 삼랑진. | 상동, 거진, 연무, 삼교, 풍산, 감포, 청도, 하남, 진영. |

수 있는 것은 위의 분류 가운데 「농촌지원」요인에 강세를 나타내면서 적어도 전국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상회하는 성장추세를 나타내는 곳이다. 여기에 속하는 소도읍가운데 특히 「농촌지원」요인에 최강세를 보이면서 도시화율에는 미달되지만 자연인구증가율을 나타내는 소도읍들로서 시승격이 기대되는 읍이 모두 이 분류에 속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끝으로 덧붙일 사항은 「농촌지원」요인에 열세이지만 인구증가율에서는 도시화율을 상회하는 소도읍은 그 나름의 특징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오산, 여주, 이천은 수도권내의 소도읍들로서 차츰 서울서 지방으로 소산되는 공장의 적정입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구미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거대한 공단(工團)이 자리잡은 곳이기에 그러하다. 여주, 이천은 달리 「농촌지원」요인에서는 최열세이지만 「도회」요인에 최강세인 사실도 주목된다.

다. 소도읍의 입지적 특성

소도읍의 기능과 크기는 인접도시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짐을 지적한 바 있다. 대체로 인

접도시가 같은 크기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상호간에 경쟁관계를, 다른 크기의 도시이면 얼마만큼의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인접도시와의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소도읍의 발전가능성이 달라진다.

입지적 측면에서 발전가능성을 논의하자면 항상 대도시 그 가운데 수위도시(首位都市)와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수위도시를 포함한 대도시가 혁신(革新)의 공간확산(空間擴散)에 발원지(發源地)이거나 매개지(媒介地)이기 때문이다. 경험적 관찰에 따르면 「대도시이면(대도시로 부터)멀리, 소도시이면(대도시와)가까이」(big far, small near) 자리잡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도읍의 발전 가능성을 가름하는데 좋은 시사(示唆)를 준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입지적 특성의 분류에서 「대도시 노동시장권」에 자리잡은 소도읍은 인접도시의 거대한 집적경제를 함유함으로써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근대적 도시화를 이룩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의 소도읍이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더라도 소도시 특유의 지역의식(地域意識)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부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首都圈人口再配置計劃)에서 정의하는 노동시장권은 5대거점도시로 부터 20km내의 지역이다. 여기에 서울과 부산을 추가하여 7대도시의 노동 시장권에 속하는 소도읍은 구리, 신도(서울), 대저, 김해(부산), 옥천, 신탄진, 유성(대전), 삼례, 봉동(전주), 송정, 화순(광주), 안심, 경산, 하양(대구), 진영(마산)이다. 7대거점도시는 아니지만 거대한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여수-순천 지역 및 이리-군산 지역도 주변의 소도읍에 이와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둘째 대도시 영향권 내의 소도시도 대도시를 잇는 고속도로등의 근대적 교통망이나 도시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도시회랑(都市回廊)으로 발달하고 있는 지역내에 자리잡고 있어서 적극적인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고속도로나 도시회랑 지역의 폭 5km내의 소도읍을 이 분류로 정의하면 신탄진, 안심, 전천(경부고속도로), 유성, 연무, 삼례, 정주(호남고속도로), 장성, 광양, 사천, 진영, 김해(남해고속도로), 이천, 여주(영동고속도로), 창녕, 남지(구마고속도로)가 해당되며, 다소 중복되지만 도시회랑지역내의 소도읍은 오산, 송탄, 평택, 성환, 조치원, 신탄진(서울-대전회랑), 삼례, 장항(전주-군산회랑), 김해, 진영, 대저(부산-마산회랑), 안심 하양, 금호, 영천, 전천, 안강(대구-포항회랑), 목호, 삼척, 북평회랑내의 세움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5만 이상의 시로부터 한시간 이상의 교통거리를 떨어져 있는 소도시는 원경지역내의 소도시라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시간의 교통거리대(交通距離帶)는 국도(國道)상에서는 45KM 정도인 바 여기에 해당하는 소도읍은 이천, 여주, 금촌, 강화(경기도), 홍천, 영월, 상동, 정선, 사북, 철원, 김화, 거진, 목호, 삼척, 북평, 장성, 황지, 도계(강원도),

보은, 영동, 제천(충북), 논산, 연무, 부여, 대천, 홍성, 광천, 예산, 서산, 태안, 당진(충남), 남원, 정주(전북), 장흥, 강진, 영산포, 함평, 완도(전남), 금호, 청도, 점촌, 문경, 가은, 영주, 풍기(경북), 밀양, 장승포, 하동, 함양, 거창(경남), 서귀포(제주도)이다.

네번째는 도시-농촌의 중간지대로서 위의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소도읍이다⁽²⁰⁾. 입지적 특성 때문에 상위도시와의 인접에서 얻을 수 있는 「도시간 집적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며 도시와 아주 떨어져 있음에서 얻을 수 있는 배후지도 한정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더구나 비슷한 규모의 소도읍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경쟁관계가 심각한 취락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정책적으로 인접소도읍을 통합해서 하나의 소도읍에 의해 계층적 유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소도읍은 15KM 내에 인접해 있는 논산·강경, 연무, 삼교·예산, 나주·영산포, 안심·하양 등지이다.

맺 는 말

농촌지역의 개발은 포괄적인 의미의 도시화를 유발하는데 있다는 것이 지역발전론이 추구하는 일반이론이다. 농촌지역의 도시화는 도시화를 전개할 수 있는 소도읍이라는 거점과 교량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는 이곳에 산재해 있는 소도읍의 낙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농촌을 잇는 매개지로서 소도읍의 개발이 절실하다.

지역개발을 기도함에는 지역의 특성이 문제파악 및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구명되어야 한다. 더구나 인구 2~5만 수준의 읍규모의 소도읍은 도시도 농촌도 아닌 취락으로서 산업도 복합적이거나 특화되지 못한 실정에서 그 특성을 유형화함은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122개읍을 구조적으로 중단분석하고 시계열상의 변화를 인구증가율로 구분하였다. 더하여 인접도시와의 역학관계를 나타내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그 관계가 도시교통수단의 개발에 따라 변화하게 될 도시계층상에서 소도읍의 발전을 융통성 있게 모색할 수 있게 접근하였다. 예컨대 원격지역의 소도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도시-농촌의 중간지대로, 이를 또 대도시영향권, 나아가서 대도시시장권내로 그 위치가 바뀌어질 것을 감안한 소도시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임에서 그러하다.

(20) 상위도시(上位都市)와 1시간 교통시간대, 혹은 45KM내에 자리잡고 있어서 상위도시에게 배후지를 잃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소도읍의 시장세력권인 평균 15KM이내에 다른 경쟁적인 소도읍이 자리잡고 있어서 배후지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전형적인 예이다.

부록 1. 小 都 邑 別 要 因 點 數

| 要 因 | | 農 村 支 援 | 都 會 | 農 村 | 都 市 轉 移 |
|-----|---|---------|--------|--------|---------|
| 邑 名 | | | | | |
| 동 두 | 천 | 3.584 | -0.698 | -1.279 | 0.522 |
| 구 | 리 | 0.653 | -1.550 | -1.376 | 2.067 |
| 여 | 주 | -0.728 | 0.863 | -0.056 | 0.116 |
| 평 | 택 | 1.716 | 1.669 | 0.457 | 0.092 |
| 송 | 탄 | 2.132 | -0.241 | 0.002 | -0.361 |
| 오 | 산 | 0.194 | -0.152 | -0.045 | 0.681 |
| 금 | 촌 | -3.70 | 0.568 | -0.452 | -0.193 |
| 문 | 산 | 0.369 | -0.406 | -0.850 | 0.081 |
| 신 | 도 | 0.930 | -2.311 | -1.285 | 1.962 |
| 가 | 평 | -1.048 | 0.045 | -0.760 | -0.300 |
| 이 | 천 | -0.710 | 1.083 | -0.771 | 0.107 |
| 장 | 호 | -0.665 | -0.460 | 0.309 | -0.294 |
| 안 | 성 | 0.559 | 1.640 | -0.029 | -0.599 |
| 강 | 화 | -0.314 | 0.807 | -0.247 | -0.783 |
| 홍 | 천 | 0.405 | 0.012 | -1.079 | -0.577 |
| 영 | 월 | -0.575 | 0.562 | -0.252 | 0.119 |
| 상 | 동 | -0.882 | -0.282 | -1.475 | -0.479 |
| 정 | 선 | -0.774 | 0.439 | -0.815 | -0.212 |
| 사 | 부 | 0.898 | -1.463 | -2.734 | 1.243 |
| 철 | 원 | -1.754 | 0.538 | -1.248 | -0.037 |
| 김 | 화 | -1.737 | -0.020 | -1.210 | -0.351 |
| 거 | 진 | -0.748 | -0.261 | -1.005 | -0.380 |
| 주 | 진 | 0.236 | -0.530 | -1.230 | -0.655 |
| 무 | 호 | 1.427 | -1.054 | -1.763 | -0.502 |
| 삼 | 척 | 0.152 | 0.065 | -0.705 | -0.070 |
| 복 | 평 | -0.012 | -0.444 | -0.035 | -0.442 |
| 장 | 성 | 0.932 | 0.265 | -2.440 | 0.767 |
| 황 | 지 | 0.946 | -0.641 | -2.361 | 0.925 |
| 도 | 계 | 0.279 | -1.322 | -0.859 | 0.310 |
| 보 | 은 | -0.360 | 0.590 | -0.744 | -0.608 |
| 옥 | 천 | -0.666 | 0.291 | -0.097 | 0.653 |
| 영 | 동 | -0.309 | 0.682 | -0.318 | -0.222 |
| 진 | 천 | -0.239 | 0.483 | 0.063 | -0.207 |
| 증 | 평 | -0.155 | -0.226 | 0.575 | -0.324 |
| 음 | 성 | -0.548 | -0.203 | -0.040 | 0.068 |
| 금 | 왕 | -0.593 | -1.220 | 0.085 | -0.068 |
| 계 | 천 | 4.673 | -1.008 | 0.093 | 0.134 |
| 금 | 산 | 0.354 | 0.660 | 0.072 | -0.071 |
| 신 | 진 | -0.281 | -1.176 | -0.539 | 0.378 |
| 유 | 성 | -0.388 | -0.048 | -0.397 | 0.030 |
| 조 | 원 | 0.341 | 0.767 | -0.856 | -0.363 |
| 공 | 주 | 0.129 | 1.947 | -1.934 | 0.819 |

| 要 因 | | 農村支援 | 都 會 | 農 村 | 都市轉移 |
|-----|---|--------|--------|--------|--------|
| 邑 名 | | | | | |
| 논 | 산 | 0.296 | 1.062 | -0.494 | 0.091 |
| 강 | 경 | -0.900 | 0.636 | -0.728 | -0.070 |
| 연 | 무 | 0.210 | -1.024 | 0.731 | -0.283 |
| 부 | 여 | -0.566 | 1.095 | 1.114 | 0.595 |
| 장 | 항 | -0.437 | 0.671 | -0.628 | -1.172 |
| 대 | 천 | 0.590 | 0.584 | 0.093 | -0.117 |
| 홍 | 성 | -0.297 | 1.155 | 0.292 | -0.073 |
| 광 | 천 | -0.452 | 0.622 | 0.016 | -0.307 |
| 예 | 산 | 0.346 | 1.361 | -0.011 | -0.290 |
| 삼 | 교 | -0.670 | -0.095 | 0.743 | -0.324 |
| 서 | 산 | 0.350 | 0.611 | 0.538 | 0.236 |
| 태 | 안 | -0.675 | -0.372 | 0.468 | 0.047 |
| 당 | 진 | -0.306 | 1.154 | 0.464 | -0.158 |
| 합 | 덕 | -0.192 | -0.010 | 0.863 | -0.406 |
| 온 | 양 | 0.766 | 0.616 | -0.143 | -0.297 |
| 성 | 환 | 0.101 | -0.947 | -0.743 | -0.110 |
| 삼 | 래 | -0.542 | -1.112 | 0.567 | -0.239 |
| 봉 | 동 | -0.541 | -1.577 | 0.536 | -0.479 |
| 남 | 원 | 1.623 | 0.620 | 0.054 | 0.225 |
| 정 | 주 | 2.522 | 0.582 | -0.025 | -1.262 |
| 신 | 인 | -0.579 | -0.065 | 0.473 | -0.277 |
| 고 | 창 | -0.466 | 0.901 | -0.041 | -0.522 |
| 부 | 안 | -0.135 | 1.132 | 0.775 | -0.045 |
| 김 | 제 | 1.362 | 1.001 | 0.776 | -0.236 |
| 송 | 정 | 1.683 | -0.159 | -0.554 | -0.230 |
| 담 | 양 | -0.895 | 1.216 | -0.884 | -0.497 |
| 구 | 래 | -0.431 | 0.511 | -0.460 | -0.524 |
| 광 | 양 | -0.280 | -0.342 | 1.059 | -0.447 |
| 도 | 양 | 0.087 | -0.866 | 0.036 | -0.948 |
| 보 | 성 | -0.589 | 0.393 | 0.027 | -0.463 |
| 별 | 교 | 0.151 | -0.932 | 2.914 | -0.375 |
| 화 | 순 | -0.601 | -0.713 | 0.190 | -0.318 |
| 장 | 홍 | 0.010 | 0.159 | 1.026 | 0.233 |
| 강 | 진 | -0.484 | 0.414 | 0.694 | -0.360 |
| 해 | 남 | -0.258 | 0.885 | 0.220 | -0.056 |
| 나 | 주 | -0.355 | 0.662 | -0.193 | 0.014 |
| 영 | 포 | -0.358 | -0.894 | 0.337 | -0.525 |
| 합 | 평 | -0.404 | -0.038 | 0.318 | -0.021 |
| 영 | 광 | -0.392 | 0.633 | 0.302 | -0.426 |
| 장 | 성 | -0.423 | 0.073 | 0.284 | -0.015 |
| 완 | 도 | 0.678 | 0.378 | -1.290 | -0.860 |
| 의 | 성 | 0.090 | 0.296 | 0.334 | -0.911 |
| 풍 | 산 | -0.736 | -1.641 | 0.353 | -0.049 |

| 邑 名 | | 農村支援 | 都 會 | 農 村 | 都市轉移 | |
|---|---|--------|--------|--------|--------|--------|
| 구 의 안 감 건 영 금 경 하 안 청 왜 구 상 접 문 가 여 영 풍 창 남 밀 삼 하 김 진 대 장 고 사 하 합 거 한 서 대 | 룡 | 포 | -0.120 | -1.064 | -0.214 | -0.577 |
| | | 창 | -0.153 | -2.058 | 1.070 | -0.484 |
| | | 강 | 0.370 | -2.279 | 2.171 | -0.098 |
| | | 포 | -1.200 | -0.058 | -0.938 | -0.674 |
| | | 천 | -0.659 | -1.224 | 0.880 | -1.146 |
| | | 천 | 0.852 | 0.341 | 1.442 | -0.289 |
| | | 호 | -0.764 | -1.499 | 0.683 | 0.763 |
| | | 산 | 0.068 | 0.513 | -0.540 | 0.308 |
| | | 양 | -0.254 | -0.617 | 0.019 | 0.269 |
| | | 심 | 0.109 | -0.059 | -0.368 | 0.453 |
| 랑 | 도 | -0.618 | -0.059 | 0.802 | -0.588 | |
| | 관 | 0.419 | 0.427 | -0.767 | -0.047 | |
| | 미 | -0.406 | 0.971 | 0.275 | 5.313 | |
| | 주 | 2.165 | 0.879 | 2.281 | -0.213 | |
| | 촌 | 0.848 | 1.004 | -0.544 | -0.031 | |
| | 경 | -0.539 | -0.679 | -0.514 | -0.468 | |
| | 은 | -0.389 | -0.478 | -1.636 | -0.173 | |
| | 천 | -1.020 | 0.518 | 0.579 | 6.098 | |
| | 주 | 2.166 | 1.919 | 0.208 | 0.345 | |
| | 기 | -0.413 | -1.044 | -0.312 | -0.575 | |
| 승 | 녕 | -0.594 | 0.331 | 0.335 | -0.094 | |
| | 지 | -0.446 | -0.454 | 0.984 | -0.321 | |
| | 양 | 1.406 | 1.202 | 0.668 | 0.103 | |
| | 진 | -0.571 | -1.374 | 0.319 | 0.417 | |
| | 남 | -0.676 | -1.109 | 0.292 | -0.315 | |
| | 해 | 1.730 | 0.739 | 2.061 | 0.325 | |
| | 영 | -0.916 | 1.016 | 0.428 | -0.031 | |
| | 저 | -0.547 | -1.453 | 0.694 | 0.311 | |
| | 포 | -1.197 | 0.798 | -0.741 | -0.341 | |
| | 성 | -0.099 | 0.529 | -0.251 | -0.283 | |
| 승 | 천 | -0.461 | 0.063 | -0.344 | -0.533 | |
| | 동 | -0.620 | 0.739 | -0.392 | -0.424 | |
| | 양 | 0.244 | 0.317 | 0.713 | 0.214 | |
| | 창 | 0.639 | 1.146 | 1.220 | 0.320 | |
| | 림 | -0.988 | -0.507 | 1.748 | 0.060 | |
| | 귀 | 1.092 | 0.022 | 1.950 | 1.401 | |
| 대 | 정 | -0.851 | -0.136 | 1.421 | -0.240 | |